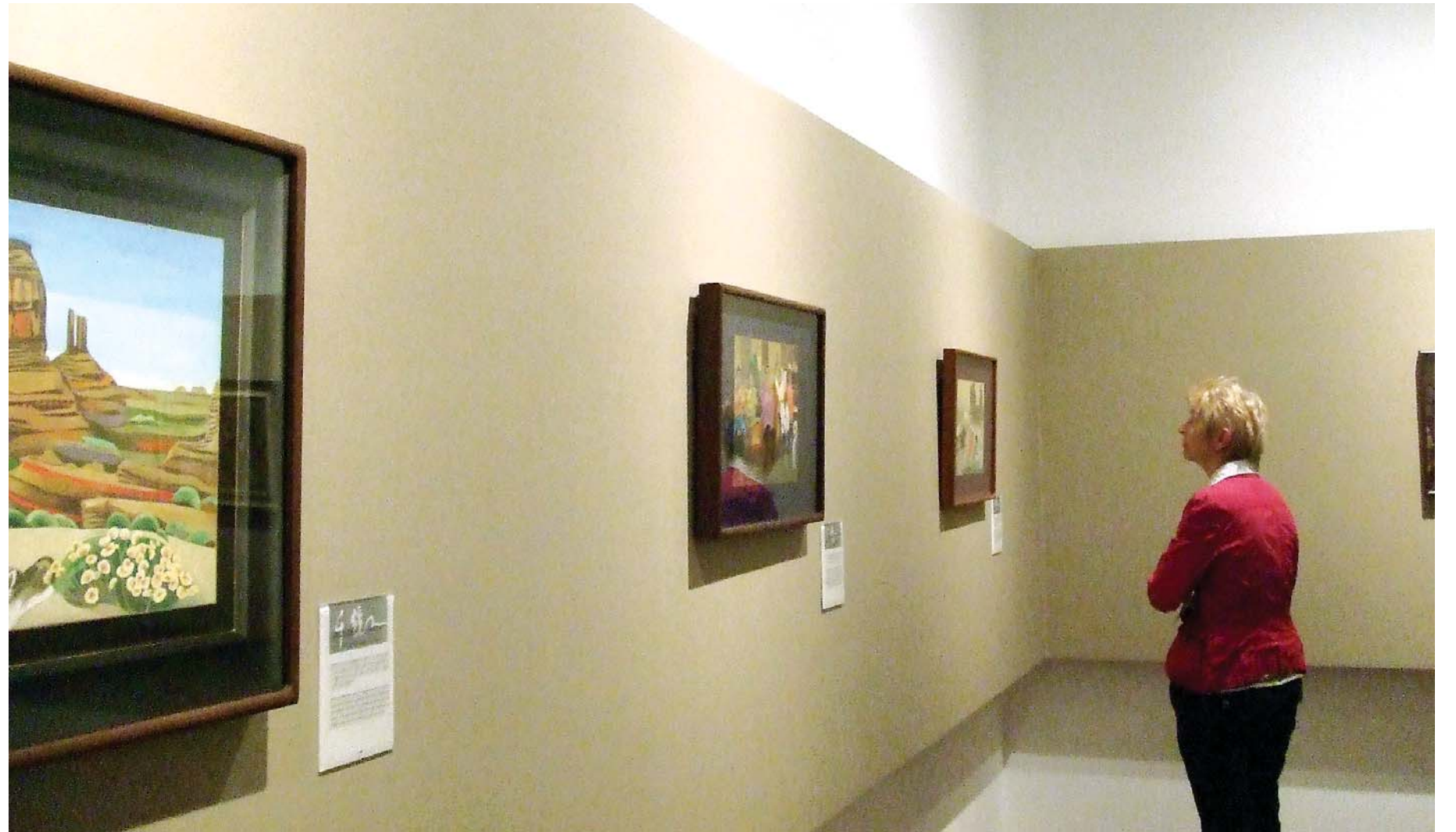




하정웅컬렉션의 이우환 작품은 국내 미술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최대 규모다. 매년 전 세계에서 50만 명이 찾는 일본 나오키마 이우환 미술관의 전시실 모습.



서울 시립미술관의 천경자 갤러리에서 한 외국인이 작품들을 관람하고 있다. 70평 규모의 천경자 갤러리에는 천 화백이 기증한 93점의 작품과 화구 등이 전시돼 있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 성공 프로젝트

(1부) 킬러 콘텐츠를 만들자

1 하정웅 컬렉션

지난 4월25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에 위치한 서울시립미술관. 새벽부터 비가 내린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마침 이날은 (사)한국사립미술협회와 국내의 미술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뮤지엄 데이’ 행사(24~25일)가 열려서인지 로비에는 벽안의 외국인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모습은 상당수 관람객들이 메인 행사장인 1층 전시실 보다 2층으로 먼저 올라가는 것이었다. 이들을 끌어 당긴 건 다름아닌 2층에 전시된 ‘천경자 컬렉션’. 지난 98년 서울시에 작품 93점을 기증한 천 화백의 예술세계를 기리기 위해 서울 시립미술관이 공들여 꾸민 곳이다.

고흥 출신인 천 화백이 고향도 아닌 서울에 자신의 ‘분신’들을 내놓은 이유는 ‘귀하게 잘 돌봐줄 곳’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천 화백의 ‘믿음’대로 미술관은 국내 미술관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2002년 작家的 이름을 딴 70평 규모의 갤러리를 개설, 전담 학예연구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는 등 ‘VIP예우’를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상설 기획전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화가의 예술세계를 소개하고 미술관을 찾는 외국인의 미술계 인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린다.

‘천경자의 혼’이라는 명패를 단 이곳에는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1977년 작), ‘자살의 미’(1968), ‘이탈리아 기행’(1973), ‘생애’(1951) 등 1940년대~90년

영암출신 교포 사업가 하정웅씨 광주시에 2222점 기증 日 모노파 창시자 이우환 화백작 14점 국내 최대 보유 30% 뿐인 인권계열 작품 구입 늘려 컬렉션 특화 필요

대 후반의 대표작과 드로잉, 화구 등이 전시돼 있다. 특히 ‘보랏빛 정한’, ‘영원한 초상’, ‘끝없는 여정’, ‘문학의 향기’, ‘도안화와 드로잉’ 등 5개의 방으로 구성된 갤러리는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천 화백의 독자적인 채색화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귀중한 공간이다. 개관 이후 1일 평균 400~500명이 찾은 정도다. 상업갤러리에서 기획하는 특별한 이외에 천 화백의 예술세계와 삶을 총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미술관이다. 천 화백의 기증작들을 정성들여 가꾼 덕분에 모든 미술관이 부러워 하는 서울시립미술관의 아이러니 됐다. 지난 3월 고흥군의 기증작에 대한 관리소홀로 개관 4년만에 문을 닫은 고흥 천경자 전시관(본보 3월20일자 보도)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서울시립미술관에 천경자 컬렉션이 있다면 광주시

립미술관에는 ‘하정웅 컬렉션’이 있다. 하지만 컬렉션의 위상은 사뭇 다르다. 물론 미술품의 경중을 따지는 자체가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인지도 만큼은 극과 극이다. 천경자 컬렉션이 국내외에서 ‘통하는’ 브랜드인 데 반해 하정웅 컬렉션은 광주시민들조차 ‘존재’를 아는 사람이 적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그 작품들이 미술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충분히 조명되지 않는 탓이다.

하정웅 컬렉션은 영암출신 재일교포 사업가 하정웅(74)씨가 지난 93년 212점을 시작으로 모두 네차례에 걸쳐 광주시에 무상으로 기증한 2222점의 미술품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의 총 소장품 3561점 가운데 3분의 2를 차지한다. 하씨의 기증 덕분에 광주시립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소장품을

보유한 미술관이 됐다.

하정웅 컬렉션을 살펴 보면 드로잉·관화가 1081점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에 회화 795점, 사진 263점, 조각 29점, 한국화 27점, 뉴미디어 11점, 서예 11점, 공예 4점 등의 순이다. 이들 가운데에는 파블로 피카소의 ‘여인상’, 살바도르 달리의 ‘초봄의 나날들’, 앤디 워홀의 ‘모택동’ 등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도 들어 있다. 특히 재일교포 현대미술작가 이우환(76)의 ‘선으로부터’ 등 70~90년대 작품 14점을 비롯 손아유, 광덕중 등 재일교포작가와 백산 등 외국작가들의 인권을 주제로 한 작품은 하정웅 컬렉션의 하이라이트다.

일본 모노파의 창시자인 이 화백은 최근 소더비 등 국제경매시장에서 수십억원에 거래되는 최고의 블루칩작가. 이 때문에 그의 작품은 1년 작품구입예산이 10억(2012년 기준)에 불과한 광주시립미술관으로서 는 보물 중의 보물이다. 여기에 오는 7월 하씨가 이 화백의 최근작을 포함해 12점을 기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추가기증이 이루어지면 국내에서 이 화백의 작품입대기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광주시립미술관이 유일하다. 일본 나오키마 이우환 미술관에 이어 아시아에선 두번째로 광주에 ‘이우환 미술관’이 생기는 셈이다. 지난 2010년 6월 문을 연 나오키마 이우환 미술관은 현재 평균 50여 만명의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는 세계적인 명소다.

미술관의 컬렉션은 도시의 품격이자 미술관의 정체

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런 점에서 인권계열의 작품들이 다수 포함된 하정웅 컬렉션은 민주·평화·인권을 지향하는 광주의 이미지에 부합한 문화상품이다. 오는 2014년 개관예정인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데다 국립 현대미술관, 서울시립 미술관과의 관람객 유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킬러콘텐츠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광주 시립미술관의 하정웅 컬렉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아울러 시립미술관의 소장작품 구입에도 선택과 집중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20~30%에 불과한 인권계열의 작품구입을 늘려 컬렉션의 품격을 키우는 등 특화전략이 필요하다.

미술평론가 최병식 교수(경희대 대대)는 “시립미술관 소장품은 (미술관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광주의 이미지와 정신을 반영하는 작품들을 정책적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기획전과 프로그램을 통해 시립미술관의 컬렉션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50
만원~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대산프리모가발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장이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 시력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화된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를 튼튼케 하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연중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9(0204)-종-4738호